

# 전북교육청 학부모교육 '매우 만족'

### 2020년 학부모교육 운영 성과 분석... 프로그램 만족도 97.5%

전북교육청에서 진행하는 학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교육청의 '2020년 학부모교육 운영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부모교육 만족도는 96.8%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육내용 만족도 97.5%, 강사 만족도 96.1%다. 이는 지난해 학부모교육에 참여한 8,702명 가운데 2,5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학부모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은 큰 폭으로 줄었지만 만족도는 전년도 95.8%에 비해 높아졌다.

도교육청은 중간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하는 부모를 위해 야간 교육 운영, 지역 이동센터 및 단위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형 주말교육 운영 등 교육수요 대상을 다양화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프로그램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재능기부 활성화 영역인 '일상 속 쓰디쓰기 교육(94.5%)', '학부모 놀이활동

가 놀이밥퍼 교육(95%)', '학습친구 엄마샘 자원활동가 교육(100%)' 등에서 '매우 만족' 비율이 높았다.

또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영역인 '미디어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자녀와 공감하는 성교육', '놀이밥 60·이해 교육' 등에서도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밖에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97.8%, '일하는 부모를 위한 야간 및 주말 교육' 96.2%로 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학부모교육 참여자의 84.5%는

여성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4.2%·초등학교 45.2%·중학교 20.7%·고등학교 8.9%로 자녀의 학년이 저학년일수록 학부모교육 참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학부모교육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부모로서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올해도 수요자 중심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온라인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 지역 농축산물로 요리개발·홍보

### 전북대 농생대, 유튜브 '농생TV'... 쿠킹 클래스 진행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요리를 직접 개발해 매우 좋았어요"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류경선)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특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를 이용한 요리 개발과 쿠킹 클래스를 진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전북대는 당초 국립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을 돌며 농산어촌의 성장을 돕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획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프로그램으로 변경 실시했다.

이에 전북대 농생대는 참여 학생을 모집해 3명씩 3개 팀으로 나눠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를 조사하고, 이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해 직접 요리 실습까지 실시했다.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지역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스텝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를 면밀하게 조사해 정음의 명물인 '정음한우'와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유산균 돼지고기 '두지포크', 부안 특산물인 '뽕잎을 활용

한 편육 '아이데린'과 오디를 활용한 단산음료 '쇼트앤드'를 선정했다.

학생들은 지역 농축산물 브랜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정음한우를 활용한 버거용 패티를 만들어 '정음한우버거'를 만들었고, 두지포크는 뒷다리살로 수비드화(진공 저온으로 익힌 퓨전 요리)을, 아이데린으로는 피자, 쇼트앤드로는 오디카테일 막걸리를 각각 개발했다.

이는 최근 전북대 글로벌푸드컬처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올리벤즈'에서 직접 요리 실습을 했고, 이러한 전 과정과 특산품에 대한 홍보 내용 등은 영상으로 담겨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특히 이 브랜드들은 전북대 산학협력 업체나 가족기업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로, 코로나19로 홍보나 판로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매우 긍정적인 지역 상생이 기대된다.

한편, 전북대 학생들이 제작한 영상은 유튜브 채널 '농생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e-DhcSkXID2DDkU1nwz3Q>)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성공 기원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 신청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 기원을 위한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언택트 천사마라톤대회'는 2023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와 활력을 드리고자 대회 참가비 없이 개최하는 비대면 마라톤 대회다. 아울러 기부 후원사 모집을 통해 마라톤 참가자 레이스 완주 1인당 1만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착한 마라톤대회다.

전 국민 누구나 20~100세까지 본인의 연령에 따라 나눠 참여 가능하다. 하프(21km), 10km, 5km 참여 종목을 선택해 자신이 신청한 거리를 전국 어느 장소에서든 개인적으로 기록에 도전하면 된다.

5월 1일~31일까지 대회 전용앱으로 참가신청을 받는다. 다만, 참가신청 전용앱이 개발이 완료되면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대회 기간은 6월 1일~30일까지로 전국 어디서나 자신이 신청한 거리를 런닝앱(삼성헬스, 런데이)을 이용해 본인의 기록을 대회 전용앱에 제출·등록하면 대회 참가가 완료된다.

대회 참가에 대한 안내 사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apmg2023.kr](http://www.apmg2023.kr)) 행사정보 코너(천사마라톤대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대회 종목별, 연령별 입상자에게 다양한 시상상품도 준비돼 있다.

1등에서 3등까지는 은누리 상품권을 지급, 30등까지는 런닝벨트를 시상상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 김승환 교육감, 전주효천초서 교통지도·방역상황 확인

김승환 교육감은 2일 전주효천초등학교를 찾아 학생들의 교통지도와 학교 방역 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3월 새학기부터 전면등교가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등굣길을 응원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효천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며 교통안전 홍보자료 등을 배부했다.

한편 학생들의 등교가 마무리 된 이후에는 학교 방역과 수업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은성기자



## 전북대, 이전 공공기관과 공적연금 전문인력 양성

### 제주대-국민연금-공무원공단 등과 인재양성 협약 체결... 공적연금 특화 맞춤형 인재 육성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공적연금 인재양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국민연금공단, 공무원공단 등과 손을 잡았다.

그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과 연계한 오픈 캠퍼스 운영을 통해 맞춤형 인재 양성과 취업률 제고 등에 앞장서 왔던 전북대가 인재양성 협력 시스템 확대·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력은 전북대와 제주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공단이 공적연금 특화 오픈캠퍼스 공동 운영을 통해 공적연금기관 및 지역대학간 활발한 교류 협력과 우수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미가 크다.

전북대는 그동안 대학과 지자체, 공공기관, 산업계 등 전북지역 23개 기관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성해 공동 교과과정과 현장실습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지역 산업체와의 상생적 발전과 지역 공공기관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등 미래 대학 교육의 새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북대는 학부 과정에서 기금연계제공과 대학원 과정 연금학과 운영을 통해 지역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같은 지역 내 대학 및 기관 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북

대의 경우 공공기관 취업률이 2019년 13.3%에서 2020년 25%까지 향상됐다.

또한 전북대는 연금 분야 특성화 인력 양성을 위해 2019년부터 360명의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오픈 캠퍼스를 운영, 교육 수요자 중 17명이 국민연금공단 및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북대와 국민연금공단은 기존에 운영했던 오픈캠퍼스를 지역 자체사업에서 서남권 대학으로 확장해 학생들에게 현장 실무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취업을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 전주대, 도 산학관커플링사업 최다 선정

전주대학교는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2021년 대학 산학관커플링사업'에 총 6개 과정에 선정되며 도내 대학 중 최다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과 기관, 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업의 수요에 맞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주대는 인문사회계열에서 ▲문화관광콘텐츠커플링, ▲지역기반경영커플링 과정이, 이공계열에서는 ▲리빙

랩기반문화콘텐츠커플링, ▲스마트에너지커플링, ▲탄소기술융합커플링, ▲스마트시티커플링 과정이 선정, 2021년 총 사업비 10억 6천만원에 지급받게 됐다.

전주대 커플링사업단에는 총 16개 학과 295명이 참여하고 있다.

350개 기업과 연계해 사회맞춤형 실무교육 및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취업 약정형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기업으로 매년 80% 이상의 졸업생이 취업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http://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